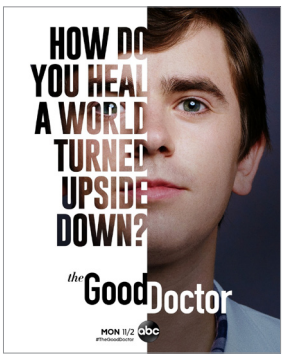
의사는 누군가의 상처를 낫도록 도와주고,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도 때론 실수하고, 그런 실수를 통해 성장해 간다. 특히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드라마 '굿 닥터'의 주인공 숀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문이다.

글 편집실

장시간 수술이나 진료하는 의사와 경추척수증

드라마 〈굿 닥터(2017~)〉를 통해 본 경추척수증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천재 의사

드라마 〈굿 닥터〉는 주원과 문채원 주연의 한국드라마 〈굿 닥터〉를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숀(프레디 하이모어)은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소통과 언어, 추상적 개념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타인과의 교류에 서투른 숀은 천재적인 암기력과 다각적 공간 인지 능력으로 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멘토이자 병원장인 글래스맨(리차드 쉬프)의 추천으로 소아과 병동에 레지던트로 채용된다. 물론 병원에는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숀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숀은 천재적인 재능 덕분에 환자의 경미한 증상만으로도 병을 진단하지만 부족한 사회성 때문에 여러 위기에 처하게 된다. 환자와의 교감은 물론, 동료 의사와 선배와도 소통에 때로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자면 숀은 환자에게 병에 관해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 환자를 겁먹게 한다. 또한 강도가 손들고 지갑 꺼내라고 협박하자 손을 들고 어떻게 지갑을 꺼내냐고 따지다가 화난 강도가 총을 쏘아 뒤에 있던 여성이 중태에 빠지게 만드는 등이다.

하지만 숀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료 의사인 클레어와 칼루, 냉정하게 숀의 능력만큼은 인정하는 멜렌데즈와 따스한 지지자 글래스맨 등 병원 내 다양한 사람들과 조금씩 소통하면서 의사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나간다.

목디스크로 가는 징검다리, 경추척수증

경추척수증은 장시간의 수술과 진료로 경추를 구부리고 있는 의사들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는 퇴행성질환이지만, 최근에는 30~40대 젊은 층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거나 잘못된 자세로 오래 일하는 등의 생활습관 때문이다. 경추척수증은 경추와 인대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자라 주변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여 여러 증상을 유발한다. 증상은 어지럼증, 두통, 눈 피로, 팔 저림 등 만성피로나 혈액순환 장애와 비슷하다. 보통 퇴행성 디스크나 목디스크가 진행하면서 나타난다. 목을 다치거나 목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도 생기기 쉽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도 경추척수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약물치료로 치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어렵다. 뻐근하고 뭉치는 느낌에서 목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나타면, 통증 부위가 넓어지며 팔이나 손까지 저릴 수 있다. 팔이나 손이 저리기 시작하면 이미 경추 디스크까지 악화된 상황일 수도 있다. 어깨와 팔 저림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치료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거나 오래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작업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며, 목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도 도움이 된다.

경추척수증이 의심되나요? 체크해보세요!

- ☐ 지속적인 두통이 있다.
- ☐ 젓가락질이 힘들어 포크가 더 편하다.
- ☐ 손으로 집은 물건을 자주 떨어트린다.
- ☐ 단추를 채우기 힘들다.
- ☐ 글씨 쓰는 것이 어렵고 손놀림이 부자연스럽다.
- ☐ 어깨와 뒷목이 뭉치고 뻐근하다.

TIP

경추척수증, 이렇게 예방해요!

- 스마트폰은 눈높이까지 올려 사용한다.
- 땅바닥을 보지 않고 가슴을 펴고 걷는다.
-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고, 목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